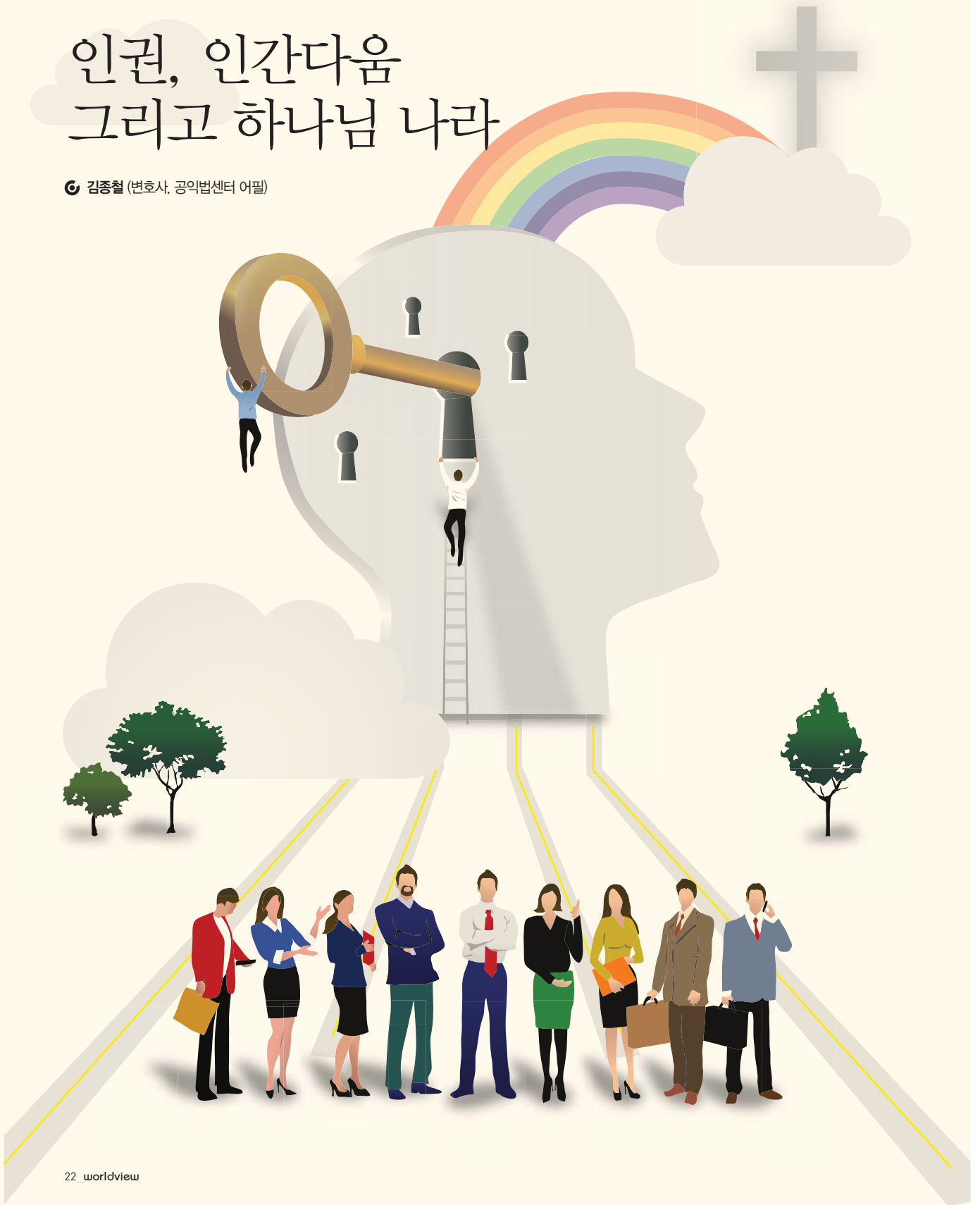


인권, 인간다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김종철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1. 20세기 인권의 시대

계몽주의 이후 철학자들에 의해 인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보편화된 것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유엔 헌장을 보면 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겼던 2001년을 기점으로 '인권'이라는 용어가 아주 일반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만 가도 인권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금지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인권'을 이야기할 때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하는데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권리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인권 보다는 바른 질서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너무 인본주의적 혹은 인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곤 합니다.



2. 기독교와 인권이 무슨 상관인가?

그러나 인권(human rights)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권리들이 많은 경우(물론 역사적으로 인권 침해해 성경으로 정당화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을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종교와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여성과 아동의 권리, 평등권, 비호를 신청할 권리 등이 그렇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왜 그러한 인권들을 보장받아야 하는지에 있어서 기독교가 결정적인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인간이 그러한 인권들을 보장받아야 하는 근거는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존엄합니까? 계몽주의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답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을 이렇게 볼 경우 아직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성의 활동이 퇴화된 노인들의 존엄성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잔혹한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 한 것이 이런 인간관입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인간의 이성이라고 할 경우, 서구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그 당시 아프리카나 아시아 사람들은 sub-human 내지 non-human 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존엄한지에 대해 신학적인 기초가 없이는 설명이(불가능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힘듭니다.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끌어낼 수 없고,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여된 가치,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엄성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이 왜 인권을 누려야 합니까?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존엄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은 단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신 죽으심 역시 인간 존엄성의 중요한 신학적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인간의 존엄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면, 어떤 인간도 존엄하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그 정도로 신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 장전이라고 하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할 때, 개신교와 카톨릭 사상가와 활동가들은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권이라는 것이 기독교와는 생소한 개념이 되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앞에서 기독교가 인권을 이야기 할 때 나올 수 있는 반응 중 “인권이라는 개념이 너무 인본주의적 혹은 인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원으로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인간이 가진 자원으로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간이 가진 자원으로 모든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인본주의이고 휴머니즘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휴머니즘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휴머니즘은 다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애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고 인간다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인문주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휴머니즘이라는 육조에서 잘못된 의미의 인본주의라는 물을 버리면서 좋은 의미의 휴머니즘(인간다움)이라는 아기까지 같이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리

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지만 인간다운 것이 뭐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인간성humanity,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가장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같은 맥락에서 인간다움(인간성)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스 로크마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쟁이가 되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 인간다움, 인권을 이해하는 열쇠

저는 이 인간다움이 인권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까? 그것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다움 well being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답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고 well going, 인간다운 대접을 하



기를 well doing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답기 위해서 인간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대접(권리)입니다. 인권이란 그것이 없을 경우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은 것이고, 즉 well going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성취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인간답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침해당할 때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대접(권리)이 인권이라고 할 경우, 그 인간답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인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다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성경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 인권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우리를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분이 인간을 해방하신 분이시고, 또 그 분이 역사의 완성자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면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실 때(타락하기 전의) 인간의 인간다움이 그 디자인 되었던 대로 성취되는 곳(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인간이 진정한 의미에서 well being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접이고, 가장 인간다운 것, 우리의 well being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실현된다고 할 경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인간다움이 성취

되는 상태가 어떤 것이고, 인간의 well being이 실현되는 상태가 어떤 것이고, 즉 인간다움이 무엇이고, 인간의 well being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살롬의 나라입니다. 이 살롬이란 무엇입니까? 전쟁(폭력)과 착취 때문에 약자들이 희생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부의 양극화 때문에 일부가 결핍으로 배고프고 죽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영적인) 병 때문에 고통과 장애를 당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차별 때문에 공동체에서 배제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압제 받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 이야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해방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라는 미가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린양과 사자가 함께 뛰여 노는 동산과 교제와 풍성한 음식이 있는 잔치라는 그림언어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몸소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메시아적 과업, 즉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까?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사람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알 수 있는데, 제임스 던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사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산상수훈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는 말씀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사야 61장 1절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복음은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란 (때로 강자들의 탐욕과 착취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이들은 억압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 이외에는 어디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 약자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던 불의가 바로 잡힐 것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에 대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몸소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2:16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라고 수군거립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을 세리라

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똑 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11:19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을 어긴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죄인 그룹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법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41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라는 의미는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처형을 위해 넘겨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방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법 밖에 두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리와 창녀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과 스스로 이방인이 된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은 가장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이렇게 그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렇게 배제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





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병을 고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병으로 장애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이야기와 선지자들의 말씀, 신약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하셨고, 태초에 디자인하신 인간다움을 실현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 인간다움이 온전히 회복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인간답기 위해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대접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답다는 것이 어떤지를 알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살롬의 나라인데, 그 살롬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이야기, 선지자들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인권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미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종말론적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일 중에 하나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반복하지만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기 well being 위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대접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well being하는 하나님의 통

치가 편만한 살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갇힌 자들이 풀려 나도록 하는 일, 부당하게 사람이 갇히지 않도록 하는 일, 전쟁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는 일, 전쟁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 박해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 차별 때문에 배제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폭력과 착취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가난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등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일이고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권을 누려야 할 이유가 존엄하기 때문이고 그 인간 존엄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또 인간을 위해 고통받고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인간답기를 요구하시는데,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접이 바로 인권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답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인간다움이 온전히 회복되고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해방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죄인들(배제된 자들)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면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김종철 대학에서 법학을, 그리고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공부했다. 라브리 공동체 간사와 기독교법률가회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면 지금은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일하고 있다.

